

강진 고려청자 생산 건물지·청자편 발굴

가마·폐기장·고려시대 도로 등 확인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조각 1점도

고려청자 요지는 고려시대 청자를 굽던 가마터가 있던 곳이다. 강진 대구면 일대에 분포돼 있는데 1963년 사적 제68호로 지정됐다.

대구면 일대가 대규모 고려청자 요지로 형성된 것은 이곳의 지리적 영향과 무관치 않다. 바다를 끼고 있어 해로를 통한 수송이 발달한 데다 육지 쪽으로는 땀값이 많아 가마를 굽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여기에 도자기 원료인 고령토, 규석이 다량으로 산출된 점도 도요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강진 고려청자 생산을 총괄했던 사무소와 최고급 청자편이 다량으로 발굴돼 화제가 되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고려청자 최전성기의 핵심장소로 평가되는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대에서 가마 1기, 폐기장 3개소, 건물지 1기, 고려 시대 도로 등이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민족문화유산연구원과 강진군이 함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무엇보다 강진 고려청자요지에서 고려청자 생산을 총괄했던 대구소(大口所)의 치소(治所) 행정사무를 맡는 관리 기관이 있는 곳)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최고급 청자조각(편)이 다량 확인되면서 국내 도자사 학계는 물론 중국과 일본 학계의 기대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초기청자부터 상감청자, 관사간지명 청자 등 최고급 청자도 출토돼 사당리 일원이 우수한 품질의 청자를 제작했던 중심지임을 보여준다. 또한 건물지는 남쪽과 서쪽의 기단시설이 확인됐다. 이곳은 1964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건물지와 60m 정도 떨어져 있다.



강진 사당리 일대에서 발견된 가마와 폐기장.



8호 가마 전경.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이 일원을 중심으로 '동국여지승람' 등 문헌에만 존재했던 대구소의 치소와 최고급 청자를 제작하던 공방지 등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가마는 사당리 8호 가마로 추정되며 연소실(불을 때는 곳), 요전부(가마작업장), 번조실(그릇을 두는 곳) 일부가 확인됐다. 폐기장 1호와 2호는 해무리 굽양(초기 청자 표식유물로 주로 차를 마시는 용도 의 안) 조각이 다수 확인돼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폐기장 2호 상층에 자리한 폐기장 3

호는 초기와 말기청자가 동시 확인돼 장기간 폐기장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발굴되는 청자 조각 수량에 비해 갑발(匣鉢·도자기를 구울 때 담는 큰 그릇)의 양이 적고 치소로 보이는 고려시대 건물지 주변에 자리한 점을 고려하면 대구소 관할의 청자를 수집하고 관리하던 곳의 폐기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밖에 발굴된 다양한 청자조각 중 지금까지 강진에서 출토된 적이 없었던 국보 제68호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간송미술관 소장)의 조각 1점도 확인됐다. 부안군에서 비슷한 편이 발굴된 사례가 있으나 국보와 거의 유사한 조각이 발굴된 적은 없기에 강진이 국보 제68호의 생산지였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발굴성과는 오는 10월3일 개최되는 강진청자축제 기간에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조각.

제64회 호남예술제 피아노 입상자

- | | | |
|---|---|--|
| <p>◆고등부
<심사위원>
홍경자 (전주기전대 교수)
신수경 (전남대 교수)
허정화 (순천대 교수)
조성경 (남부대 교수)
박효정 (한일장신대 교수)</p> <p>◇1,2학년
▲최고상
27 권지은 (광주예술고2)
▲금상
13 박하원 (2003년생)
▲은상
8 김지영 (충남예술고2)
9 이준영 (전남예술고1)
21 김세진 (광주예술고2)
22 박요한 (전남예술고2)
26 허우린 (순천제일고2)
▲동상
1 이민지 (전남예술고1)
4 임다례 (광주예술고1)
12 황윤하 (광주예술고2)
17 유지수 (전남예술고1)
18 윤채원 (상일여자고2)
25 김지혜 (광주예술고2)
28 김민서 (전남예술고1)
◇3학년</p> | <p>▲금상
9 배준희 (전남예술고3)
▲은상
3 유유빈 (광주예술고3)
10 장신영 (이일여자고3)
▲동상
2 노선민 (전남예술고3)
18 홍정민 (전남예술고3)
21 김가영 (전주기전여자고3)
23 김채원 (전남예술고3)</p> <p>◆중등부
<심사위원>
박행숙 (목포대 교수)
구재향 (호남신학대 교수)
황미경 (순천대 교수)
김정아 (광주대 교수)
서윤진 (광주교육대 교수)</p> <p>◇1,2학년
▲최고상
24 이솔비 (목포애향중2)
▲금상
6 장은서 (수안중1)
▲은상
2 양준혁 (신용중1)
4 김현진 (목포애향중2)
15 이윤솔 (광주경신중2)</p> | <p>20 이민교 (광주중앙중2)
29 김민서 (목포애향중1)
▲동상
7 양승민 (울리중1)
10 박예원 (2005년생)
12 장호 (광주동신중2)
21 이신영 (광주중앙중2)
22 박다영 (성덕중2)
27 황다은 (광주중앙중2)
37 이승아 (장성남중2)
42 송예원 (전주예술중2)
◇3학년
▲최고상
1 김민서 (화현중3)
▲금상
11 김하숨 (광주진흥중3)
▲은상
8 김환희 (수안하나중3)
10 고려성 (광주송원중3)
▲동상
12 정세령 (신창중3)
13 박시윤 (윤리중3)
16 진다영 (신가중3)
20 한다은 (군산서흥중3)</p> <p>※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p> |
|---|---|--|



‘임을 위한 행진곡’ 서예로 만나다

박종화 서예전...2일 개막 콘서트

5월 8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의 5월을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서예전에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민예총 회장이자 '투쟁의 한길로', '바쳐야 한다' 등의 작곡가이며 시인인 박종화씨가 서예전을 연다.

오는 5월 2일부터 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갖는 이번 전시는 서예로 만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2일 오후 7시 개막식은 오픈 초대 콘서트로 열린다. 심어송라리타이기도 한 작가는 오일 관련 노래를 부를 예정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재구성한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주제는 '노래와 함께하는 박종화 서예전-임을 위한 행진곡'. 박 작가는 지난해 5월 독립의 피와 민주 지사의 혼이 스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한 달 전시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재구성한 20점을 중심에 두고 100호에서 200호가

지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노래와 함께 서예 작품이 동영상으로 제작돼, 복합 전시가 될 전망이다.

박 작가는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이 금지된 이후로 과연 작가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노래의 외연을 넓히는 차원에서 붓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그 사이 정부가 바뀌고 대내외적인 환경이 바뀌었지만 노래에 담긴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작동하고 있다. 그는 "탄압받을 때 꾀를 썼기 때문에 당시의 감성이 투영돼 있다"면서 "광주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하는 당시 시대가 과연 민주주의 사회인지 묻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출신 박 작가는 전남대 신방과 입학 후 전대학 통일결사대 시위사건으로 구속됐다. 지금까지 '바쳐야 한다', '서글픈 고정관념' 등 시집과 노래이론서 '나의사랑 나의 노래', 산문집 '노래와 함께 사색과 함께'를 펴냈으며 다양한 공연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10-4611-309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동영화 '파업전야' 광주서 30년만에 개봉 금호실버콘서트 30일 광주 금호아트홀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노동영화의 대표작 '파업전야' (1990·사진)가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 등에서 30년 만에 정식 개봉한다.

장동홍(책임연출), 이재구, 장윤현, 이은기 감독이 연출한 '파업전야'는 군부독재 정권 아래의 노동자의 꿈과 현실을 담아 낸 리얼리즘의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개 당시 노태우 정부는 영화 상영을 하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발표까지 하며 상영을 막으려 했고, 이에 영화를 제작한 장산곶매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한 소원 신정을 하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상영 투쟁을 벌였다. '파업전야' 상영 장소인 전남대에는 상영을 막기 위해 사복경찰 12개 중대와 경찰 헬기까지 동원되는 등 영화사상 유례가 없는 탄압을 받았다. 노동자와 대학생 등의 지지를 받은 이 영화는 당시 30만이 넘는 인원이 대학가 등에서 관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는 디지털 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30년 만에 정식으로 극장 개봉한다. 동성극속 생산 현장에는 지난해 지든 200여 명의 노동자가 있다. 동성극속 단조반에는 주완의(임영구 분)이라는 신인이 들어온다. 김전무(왕태연 분)는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노조건설 움직임에 대해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해나가고, 단조반원인 한수는 평소 애고 지내던 주인에게 회사 편에서 선 노동자로 포섭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프라노 이순덕



바리톤 양승현

황혼을 노래하는 '2회 금호실버콘서트'가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65세 이상 아마추어 연주자가 참여하는 이번 '금호실버콘서트'에는 총 8개팀, 22명이 기량을 펼친다.

이들은 65세부터 82세까지 방송인, 교사, 사업가, 회사원 출신으로 문화센터나 합창단에서 음악활동을 했다.

먼저 박찬갑 단장과 이상화 지휘자가 이끄는 빛고를 시니어 앙상블(테너 차주원·안규금·김주유·박상휘·김홍호·정경수·최동철, 베이스 차정연·이병철·정봉석·고영오·이훈·박종신·한상택)이 '내 맘의 강물', '향수'로 문을 연다. 이어 소프라노 양복선의 '그리운 마음', 소프라노 정인숙 '님이 오시는지', 소프라노 이순덕 '오라', 바리톤 양승현 '그네', 소프라노 고재경 '그리운 금강산', 소프라노 송순자 '추심', 소프라노 공경재 '황혼의 노래'가 무대에 오른다. 전석 5000원. 문의 062-360-843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p>백세 짬뽕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짬뽕,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p>	<p>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p>	<p>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p>	<p>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p>	<p>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p>
<p>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블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p>	<p>그집고기 북구 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p>	<p>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p>	<p>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실험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p>	<p>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p>
<p>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p>	<p>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꼬아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본위 ☎010-9277-2011, 010-4624-8457</p>	<p>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p>	<p>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p>